

▣ 박근종 칼럼

1월 합계출산율 0.99명 반등, 희망의 불씨 계속 키워나갈 맞춤 정책을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2만 6,916명으로 1년 전 같은 달 2만 4,099명보다 2,817명이나 늘어나 1년 새 증가율은 11.7%로 월간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후 '1월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1월 12.5% 증가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2024년 7월부터 19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1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 15-49세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이라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99명으로 1년 전 1월 0.98명보다 0.1명이나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3월 25일 발표한 '2026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16년부터 9년 연속 감소하던 1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반등한 이후 2년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 합계출산율도 0.99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하위지만 한때 0.72명까지 떨어졌던 출산율을 생각하면 놀랍고 반가운 소식 아닐 수 없다. 1월 출생아는 2016년(-6.0%)부터 9년 연속 줄다 지난해 12.5% 늘었고, 올해도 2년 연속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1월 기준 출생아 수도 2019년(3만 271명)에 이어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국가데이터처가 2024년 1월부터 발표한 월별 '합계출산율'이 매달 0.68~0.89명 수준을 오가다 올해 최초로 1명에 육박한 0.99명이란 수치를 보인 것이다.

불과 50년 전인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아들팔 구별 말고 물만 낳아 잘 키르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살았으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1950년 5.05명(출생아 수 63만 3,976명)에 달하던 합계출산율이 1960년 베이비붐(Baby boom)에 편승하여 6.16명(108만 535명)으로 정점을 찍더니 이후 점차 줄어 1970년 4.53명(100만 6,645명), 1980년 2.82명(86만 2,835명), 1990년 1.57명(64만 9,738명), 2000년 1.48명(64만 89명)으로 2010년 1.226명(47만 171명), 2020년 0.837명(27만 2,337명), 2021년 0.808명(26만 562명), 2022년 0.778명(24만 9,186명), 2023년 0.721명(23만 28명)으로 줄어 들어 최저점을 기록하며 급격한 하향 곡선을 그렸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미뤄졌던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반등하기 시작해 2024년 0.748명(23만 831명)으로 반등한 데 이어 2025년 0.80명(25만 4,457명)으로 늘어 2년째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0명은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

산율 1.43명(2023년 기준)에 0.63명이나 한참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외부 유입 없이 해당 나라의 인구수가 현 수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합계출산율인 '대체출산율' 2.1명에도 무려 1.3명이나 부족한 실정이다. 다행히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부터 19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까지도 증가율은 가파르다. 지난해 12월 출생아는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했고, 올해 1월에는 11.7%나 급증했다. 올해 1월 출생아 수 2만 6,916명은 2019년 3월 2만 7,049명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출생아 수가 반등한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30대 인구가 증가한 것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점이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다. 젊은 층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국민의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1년 새 뚜렷하게 높아졌다. 특히 미혼남녀의 결혼·출산 의향이 개선되면서 저출생 흐름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3월 24일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에 따르면 만 25~49세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식 조사' 결과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이 2024년 3월 70.9%에서 2025년 3월 72.9%로 상승했다. 특히 20대(25~29세) 여성층에서는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이 59.2%에서 61%로, 결혼 의향은 56.6%에서 64%로 높아졌다. 또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2024년 3월 61.1%에서 2025년 3월 70.9%까지 상승했다. 출산 의향은 32.6%에서 39.7%로 올랐다. 통상 1월에는 다른 달에 비해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1월에 태어난 아이가 프래들들에 비해 성장·발달에 유리하다는 부모들의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2만5000명을 넘어선 것은 단순히 계절적인 요인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1월 12.5%나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기저효과 없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다.

더욱 고무적인 건 출생률의 선행지표라 할 인건수 2만 2,640건으로 1년 전 같은 달 2만 151건보다 2,489건(12.4%)이 늘어나 8년 만에 최다치를 나타냈다. 약화일로(惡化一略)였던 출산율이 반등세를 이어가는 건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이런 청신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욱더 획기적이고 청년·신혼부부 등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실행해 나가야만 한다. 지난해 1년 동안 출생아 수는 25만 4,457명으로 전년보다 6.8% 늘고,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전년보다 0.05명 상승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에 따른 기저효과(基底效果 | Base effect)도 있

겠지만 각종 인구 지표가 반등세를 보이는 건 혼인·출산 인식의 변화뿐 아니라 육아휴직 등 정책적 요인, 기업들의 지원 확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육아휴직 사용자의 추가 출산 비율이 비사용자보다 12% 높다는 점을 봐도 그렇다. 또 출산 연령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험관 시술 같은 난임 치료 확대도 쌍둥이 등 '다태아(Multifetal pregnancy)' 출생이 늘어난 점도 눈여겨볼 요인이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만은 없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꼴찌 수준이다. 무엇보다 인구효과를 감안하면 결코 안심할 수 없다. 분석이다. 인구 규모 자체가 큰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의 자녀들이 주 출산 연령층에 진입한 효과를 견어내면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기간이 곧 들이닥치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출산율이 가장 높은 30~34세 여성 인구는 지난해 170만 142명, 올해 172만 458명으로 소폭 상승한 뒤 2027년 170만 8,959명, 2028년 169만 1,835명으로 내리막길을 걷는다. 2033년에는 146만 1,190명으로 150만 명 선이 무너진다. 출산율을 방어하더라도 인구 규모 자체가 쪼그라들며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시기가 곧 도래하는 셈이다. 해오던 정책은 더 보완하고, '일·가정 양립 제도'가 사회 전반으로 더 확산하도록 해야만 한다. 의료·보육 등 공공 인프라(Infra)를 확충하고, 주거·일자리같이 청년들이 결혼·출산을 가로막는 구조적 난제도 실효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인구절벽 위기를 벗어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다행히도 젊은 세대의 출산에 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인구보전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전국 만 20~44세 남녀 205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실시한 '제3차 국민 인구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할 의사가 있는 미혼 남녀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결혼 의향이 있다'라고 답한 미혼 남성의 비율은 전년 58.5%에서 60.8%로, 미혼 여성은 44.6%에서 47.6%로 각각 상승했다. 결혼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미혼 남성의 경우 '결혼 비용 부담'이 24.5%로 가장 많았고, 미혼 여성은 '기대에 맞는 상대가 없다'라는 응답이 18.3%로 가장 높았다. 출산 의향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출산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미혼 남성 62.0%로 전년 대비 3.6%포인트 상승했고, 미혼 여성도 42.6%로 1.7%포인트 높아졌다. 기혼 남성(32.9%)과 기혼 여성(24.3%) 역시 각각 2.8%포인트, 2.3%포인트 증가했다. 집단별 출생률 기대 자녀 수는 기혼 남성 1.69명, 기혼 여성 1.67명, 미혼 남성 1.54명, 미혼 여성 0.91명 순이었다. 출산 의향이 없거나 망설인다고 답한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다

만 미혼 여성 집단에서는 '태어난 자녀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안타깝고 부끄럽기 그지없지만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을 넘어 인구지진(Age quake)의 대재앙(大災殃)의 한가운데 있다. 하지만 인구 감소가 불리운 대재앙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소멸 지역의 저출생이 지속되고, 수도권 인구 몰림으로 지방 소멸은 가속화(加速化)되고 있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 탱크인 한반도미래연구원(이하 '한반도')은 2020년 무렵 설정한 계획 인구와 실제 인구 간 차이는 646만 명에 이른다. 분석 대상 시·군의 96%인 119곳이 계획 인구를 실제보다 평균 22%가량 많이 설정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 "지방의 혈액인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탈출하는 흐름을 끊지 않으면 미래 지도에서 지방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산율 반등 통계에 촉박을 들 때가 아직은 아니라는 명징(明徵)한 지적이다. 정부는 단기 지표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고 주거와 일·가정 양립 등 인구 대응 정책을 지속해서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야만 한다.

문제는 지금의 성과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출생아 숫자가 60만 명대로 줄어들고 2000년대 이후는 40만~50만 명대에 그치기 때문에, 최근의 반등 기조 흐름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더욱 호출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육아휴직이나 일·가정 양립 정책이 중소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20대와 30대 초반 연령대의 결혼·출산에 대한 지원 정책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주거·일자리 등이 출산율 반등을 저해하는 구조적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는 노력도 결단코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이다. 모처럼 만의 출산율과 결혼 증가세를 이어가려면 지원금 확대 등 단기 처방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하고 어려울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한 지역별 주거·일자리 안정과 보육·교육·인프라 지원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함은 물론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일자리와 자원을 분산함으로써 출산율 제고로 이어가야만 한다.

작가·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서울특별시지차지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전, 소방준감)

"고추장 더 넣어도 되나요?"...LA서

재현된 '폭군의셰프' 속 한식

비빔밥·된장국·갈비찜 시연 후 체험... '집에 가서도 만들어보고 싶어'



"여기, 김치 먹어본 사람 있나요? 백김치도요? 와, 여러분 전부 K-푸드 전문가네요."

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K-푸드 쿠킹 클래스'에 30명 남짓한 참가자들이 앞치마를 매고 모였다.

참가자들의 인종도, 연령대도, 성별도 다양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K-푸드, 한식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는 드라마 '폭군의 셰프'를 주제로 삼아 드라마 속 한식 장면을 함께 보고, 셰프의 영어 설명과 함께 직접 조리 과정을 지켜본 다음 간단한 단계를 직접 만들어보고 맛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폭군의 셰프'는 미술생 셰프가 조선시대에 떨어지면서 폭군에게 매일 산해진미를 만들어주는 내용의 tvN 드라마로, 지난해 큰 인기를 끌며 넷플릭스 비영어권 주간 1위를 차지했다.

퀴즈게이 셰프 3명은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수리간 숙수 차림으로 앞에 나서 갈비찜과 된장국, 비빔밥 조리법을 시연했다. 문화원 내 공간에 전문 조리시설이 없어 전 과정을 시연하기보다는 순서를 알려주고, 나물을 볶거나 국을 데울 때만 약한 불을 이용해 요리를 완성했다.

참가자들은 직접 드라마 속 음식을 만들어보며 연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직접 맛보며 즐거워했다. 이들은 K-푸드가 이미 LA에서도

익숙한 음식이며, 자주 즐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가자 매건 보웬스-라리비에르는 "평소에도 한국 음식을 자주 먹는 다"며 "이탈리안 음식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이 한식이다. 특히 불고기를 좋아하는데 (이날 만든) 갈비찜도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인 로빈 앤더슨은 "한국 음식은 먹어본 적이 있지만, 된장국은 처음"이라며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도 만들어보고 싶다"고 설명했다.

맨 마지막에 고추장 버터 비빔밥을 만들 때는 참가자들이 고추장을 듬뿍 넣어 새빨간 비빔밥을 만드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몇몇은 주최 측이 고추장을 치우려고 하자 조금 더 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시연을 맡은 서하람 한국술집 안짜막걸리 셰프는 "오늘 온 일반인 참가자들의 K-푸드 이해도가 생각보다 높다"며 "드라마도 보신 분들이 많고, 생각보다 한국 음식을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추장은 원래 조리법보다 맵기를 줄여서 가져왔는데, 이를 전 조리학과 학생들도 그렸고, 사람들이 고추장을 계속 추가해서 먹더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LA한국문화원과 CJ제일제당이 함께 개최했다. 지난 2일에는 LA하버칼리지 조리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이날은 일반인을 상대로 행사를 열었다.

성남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주유·충전소 확대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고유가 상황으로 시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주유소 및 충전소(LPG·수소의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소상공인 소비 촉진을 위해 주유소 가맹 대상을 연 매출 15억 원 이하 업소로 제한해 운영해왔으며, 현재 해당 기준에 따라 6곳이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주유·충전소의 성남사랑상품권 가맹 등록 기준을 기존 연 매출액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완화해, 보다 많은 주유·충전소가 가맹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4월 6일부터 가맹점으로부터 신청을 접수받아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등록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4월 중순부터 확대된 주유·충전소 가맹점에서도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해당 조치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성남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주유·충전소는 '지역상품권 chak' 앱의 '가맹점찾기' 메뉴에서 '주유소' 업종을 조회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중앙부처에 주유·충전소 매출 기준의 한시적 해제를 건의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유류비 부담을 덜고, 가계 지출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쟁·분열 넘어 평화로"...부활절 성당·교회서 한마음 기도

세계평화·남북통일·사회통합 염원...약자와 연대 촉구도

개신교회 '통일 이후 북한교회 회복 7원칙' 채택



부활절인 5일 천주교와 개신교는 전국 성당과 교회에서 예수의 부활을 기리는 미사와 예배를 올리고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우리 사회 통합을 기원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이날 정오 명동

대성당에서 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 주례로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를 올렸다. 정 대주교는 "우리는 여전히 상처 입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전쟁과 갈등이 계속돼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은 우리

에게 불안과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희망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며 "고통받는 모든 일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대주교는 "특히 전쟁과 폭력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겪는 이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가까이 있는 이들의 아픔에 응답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작은 실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살아 움직이며 그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또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해를 선택하는 자리, 무관심과 혐오를 넘어 타인의 아픔에 마음을 여는 자리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체험한다"며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각각의 양심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생명을 살리는 선택으로 하느님의 뜻에 응답하도록 초대받았다"고 역설했다.

정 대주교와 교인들은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잇달아 올렸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측은 이날 연합예배에 성도 등 약 1만 명이 모였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도 참석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별도의 부활절 메시지로 "전쟁이 그치고 죽임당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은총이 있기를 바란다"며 "모든 사람이 일상의 평온함과 삶의 충만을 누리는 평화의 세상이 오길, 나아가 모든 피조물이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사랑의 연대를 이루어 가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대한성공회도 박동신 의장주교 명의의 배포한 부활절 메시지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을 둘러싼 전쟁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슬픔과 두려움, 분노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부활은 죽음과 고통이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는 선언이며, 옳고 있는 이들과 함께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약속"이라고 전했다.

| | | | |
|--|--|--|--|
| 세계타임즈 | | www.thesegeye.com 7차재판: news@thesegeye.com | |
| ● 회장 이채봉 ● 발행인 심규영 ● 편집인 이채봉 ● 편집국장 이상성 ● 마케팅본부장 이현진 ● 인쇄인 디엠코리아(주) | | | |
| ● 편집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62길 13층 (남신빌딩) | | | |
| 편집국/기사제보 : 1661-8385 광고국 : 02)717-7272 FAX : 02)717-7273 | | 등록 : 2007년 3월 22일 창간: 4월23일 등록번호 : 서울 가 50106 구독료 : 한달 15,000원 한부1000원 | |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